

# 최근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오상봉(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

- ◎ 11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28만 5천 명 증가
  -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기와 동일하지만 15~64세 고용률은 66.3%로 전년동기 대비 0.4%p 상승
- ◎ (특징) 11월의 고용동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 20대 및 50대 이상의 취업자 증가 지속
  - 상용직 큰 폭의 증가, 일용직의 감소폭 확대 및 자영업자 감소 지속
  - 제조업, 방송통신업, 사업관리·지원업 취업자 증가 지속, 음식숙박업 취업자 증가 폭 확대 및 농업부문과 도소매업, 건설업에서 취업자 감소폭 확대
- ◎ (인구 변화) 생산가능인구가 전년동기대비 49만 3천 명 증가했는데, 그중에 경제활동인구는 29만 6천 명 증가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19만 7천 명으로 증가폭 확대
  - ‘쉬었음’과 ‘연로’의 이유로 증가한 비경제활동인구는 21만 명과 16만 9천 명임
  - 정규교육기관 및 입시학원 통학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15만 4천 명 줄었음
- ◎ (연령대)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는 50대 이상과 20대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지만, 50대 이상의 취업자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양상임

-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26만 1천 명 증가(50대 12만 5천 명 증가, 60세 이상 13만 6천 명)
  - 청년층 취업자 수는 9만 명 증가. 20~24세 증가는 재학생의 고용률 증가의 영향이 큼
  - 30, 40대는 인구 감소에 따라 취업자 수도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증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남성 취업자가 감소하기 때문임
- ◎ (종사상 지위) 상용직의 취업자 증가가 확대되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지만, 일용직이 크게 감소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폭 크게 확대
- 상용직은 50만 3천 명이 증가. 상용직 증가는 40대 이상에서 일어났는데, 특히 최근 40대 상용직 증가 지속의 영향이 큼. 업종별로는 제조업(20만 명), 음식숙박업(4만 7천 명), 출판·영상·방송·통신업(4만 9천 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5만 2천 명), 교육서비스업(4만 9천 명)이 주도하였음
  - 임시직은 17만 4천 명 증가.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에서는 증가하였지만(7만 3천 명), 도소매업에서 감소(5만 4천 명)
  - 일용직 16만 7천 명 감소. 건설업(6만 2천 명)과 도소매업(3만 9천 명)에서 크게 감소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소폭의 감소세 지속(2만 8천 명 감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큰 감소 지속(12만 5천 명 감소). 농림어업에서 8만 6천 명 감소
  -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 지속(6만 6천 명)
- ◎ (업종) 제조업의 증가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증가폭 확대로 전환되었으며,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도 감소세 지속
- 제조업은 19만 명 증가. 제조업 취업자 수는 주로 상용직(20만 명) 일자리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증가. 의복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의료, 화학제품, 건설업의 전방산업(비금속광물, 금속가공제품), 자동차에서 증가가 큼

- 서비스업은 28만 4천 명 증가. 주로 상용직(27만 2천 명) 일자리에서 증가
  - ※ 음식숙박업, 부동산 및 임대, 전문과학기술업의 증가폭 확대
  - ※ 방송통신업, 보건복지업의 증가세 지속
  - ※ 도소매업의 취업자 감소 확대 및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의 증가폭 축소
- 건설업은 3만 7천 명 감소. 건설업 경기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감소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6만 8천 명 감소.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가 8만 6천 명과 6만 1천 명 감소

###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5년 1~9월 평균 명목임금(3,278천 원)은 전년동기대비 3.4% 증가. 실질임금은 2.9% 증가
  - 9월 임금 증가률이 큰 것은 전년과 달리 추석상여금(특별급여)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 상용근로자의 1~9월 평균 정액급여가 3.1% 상승하면서 임금총액(3,463천 원)은 3.2% 상승
  - 임시·일용근로자의 1~9월 평균임금총액(1,414천 원)은 전년동기대비 2.2% 증가
  - 전체 임금 인상률이 상용근로자 임금 인상률과 임시·일용근로자 인상률보다 높은 것은 전년에 비해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9월까지 협약임금 인상률은 4.0%(진도율 63.9%)로 전년보다 0.4% 낮음
- ◎ 2015년 1~9월 평균 근로시간(171.4시간)은 전년동기대비 0.6%(1.1시간) 증가
  - 상용근로자의 1~9월 평균 근로시간은 177.1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0.7% 증가
  - 비상용근로자의 1~9월 평균 근로시간은 114.4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2.4% 감소
  - 9월 근로시간 4.9시간 증가는 월력상 근로일수 1일 증가의 영향